

# 원자력 수출 시대의 “2030 원자력 인력개발 및 수급방향 워크숍”

일시 | 2010. 4. 8(목) 13:00~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B홀

행사장 오시는 길



※ 서울교육문화회관 Tel. 02-571-8100



주 최



한국원자력학회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후 원



한국원자력연구원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한국수력원자력주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 모시는 글 Invitation

### “2030 원자력 인력 개발 및 수급 방향 워크숍”을 개최하며

21세기 들어 고유가와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등으로 원자력의 이용이 국내·외적으로 확대가 전망되며 해외 원자력 시장도 또한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자립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원자력산업의 해외진출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은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요르단 연구로 사업 일괄 수주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 성공하여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수출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원자력산업은 원전 기술 개발과 건설 및 기자재 공급, 안전 운영 및 관리, 교육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8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10기를 더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고급인력 양성과 원전 수출에 따른 산업인력의 수급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원자력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도 크게 증가가 전망됩니다. 따라서 인력양성이 현안 과제로 제기되고 있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정부 및 원자력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원자력 수출시대를 맞이하여 원자력 인력 개발 및 수급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가운데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한국원자력학회 박 군 철

**연락처** | 양명호(한국원자력학회  
정책인력협력연구부회장)  
Tel. 042-868-2150  
e-mail. mhyang@kaeri.re.kr

## 워크숍 일정 Program

시 간	내 용
13:00~13:30	등록 및 진행   한국원자력학회 연구부회장
13:30~14:30	개회사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 격려사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가나다 순) 축 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14:30~15:30	Session 1. 주제발표 • 원자력 수출시대의 원자력 경쟁력 확보와 원자력 전문 인력 개발 방향 (한국원자력연구원 오근배 본부장) • 해외 원전 수출 추진과 원전 산업 인력 수급 방안 (한국수력원자력 이태호 처장) • 원자력 수출국으로서의 원자력 인력 양성 추진 방향 (원자력학회 김명현 총무이사)
15:30~15:50	휴식
15:50~17:30	Session 2. 패널토론 주 제   중장기 원자력 인적자원 정책 방향 사회자   한기인 소장(한국원자력학회 고급정책연구소) 지정 토론자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장 -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장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중공업, 원자력산업회의, 동위원소협회한국,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7:30~18:30	Session 3. 종합토의 사회자   한기인 소장(한국원자력학회 고급정책연구소) 토론자   주제발표자, 지정 토론자, 참석자
18:30	폐회사   한국원자력학회장
18:30~	저녁 만찬

